
「경상북도 도시재생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 해외출장 보고서 -

2023. 8. 2

- 출장지역 : 일본 나고야시, 나가하마시, 다카야마시, 가나자와시
- 출장기간 : 2023. 7. 17 (월) - 7. 21 (금)
- 출장자 : 임상연 연구위원, 김태영 전문연구원, 이용훈 연구원 등 3인(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경상북도 및 시군 공무원 11인 (총 14인)

[차례]

1. 조사 개요

- 1) 목적
- 2) 출장자
- 3) 출장지
- 4) 출장 기간
- 5) 주요 활동
- 6) 세부 일정
- 7) 인터뷰 일정

2. 노리타케의 숲(ノリタケの森) 공장부지 재생 사례

3. 나가하마 쿠로카베 스퀘어(黒壁スクエア) 상점가 활성화 사례

4. 다카야마 마츠즈쿠리 스팟(高山まちづくりスポット) 지역활성화 사례

5. 가나자와시(金沢市) 도시활성화 사례

1. 조사 개요

1) 목적

- 경북 도시재생 과제 해결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쇠퇴 문제를 겪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재생, 지역창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주요 중소도시 재생 사례 조사
 - 구체적으로 나고야, 나가하마, 가나자와, 다카야마 등 일본 관서지방 중소도에서의 민간 기업 이전적지 재생, 마치즈쿠리 주식회사를 통한 빈상점가 재생, 문화예술 및 전통유산을 활용한 재생, 중심시가지 재생 사례 등을 조사하여 벤치마킹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일본 사례 조사
 - 도쿄도, 오사카부 등 특정 대도시권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본에서 중소도시 중심 지역활성화 정책 방향과 철학에 대한 이해와 지자체, 지역공동체, 기업 및 유관 사회조직 등간 다양한 협력체계 조사
 - 특히 마치즈쿠리(마을만들기)를 통한 도시계획과 거버넌스 기반을 중심으로 지역활성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과 민간, 중간지원조직간 협업 실태 및 지원시스템, 그간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
 - 도시재생 정책 담당자들이 이번 출장을 통하여 인구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경북도에서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경북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과 성공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 관련 정책의 추진과 중장기 계획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2) 출장자

- 총 14인
 - 국토연구원(3인): 임상연 연구위원, 김태영 전문연구원, 이용훈 연구원(도시연구본부)
 - 경상북도(3인): 이준홍 사무관, 김광연 주무관(도시재생과), 권혁민 팀장(도시재생지원센터)
 - 시군(8인): 현경구 주무관(포항시 도시재생과), 박무욱 주무관(안동시 도시재생과), 박종민 주무관(영천시 지역활력과), 황보엽 주무관(영양군 지역개발과), 신다영(영덕군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이성란 주무관(고령군 도시과), 김진태 주무관(영천군 도시계획과), 윤광모 주무관(예천군 도시과)

3) 출장지 및 일자별 주요 활동

① 노리타케의 숲(ノリタケの森)

- 주소: 愛知縣名古屋市西區則武新町3-1-36 (아이치현 나고야시 니시구 노리타케신마치 3-1-36)
- 연락처: +81-20-7323-8299
- 홈페이지: <https://www.noritake.co.jp/mori/>
- 일시: 2023. 07. 17(월) 15:00~17:00
- 내용 : 유희 산업시설을 재활용하여 시민공원으로 활용한 사례 조사

② 나가하마 쿠로카베 스퀘어(黒壁スクエア)

- 주소 : 滋賀縣長浜市元浜町12番38号 (시가현 나가하마시 모토하마초 12-38)
- 연락처: +81-749-65-2330 / machiyak@mx.biwa.ne.jp
- 홈페이지: <https://www.kurokabe.co.jp/>
<http://www.biwa.ne.jp/~machiyak/>
- 내용: 지방중소도시 빈점포 및 상가를 활용하여 상점가로 활성화한 사례 조사

③ 다카야마 마츠즈쿠리 스팟(高山まちづくりスポット)

- 주소: 岐阜縣高山市天満町1-5-8 (기후현 다카야마시 덴만마치 1-5-8)
- 연락처: +81-577-62-8550
- 홈페이지: <http://machispo.org/inquiry/inspection/>
- 내용: 다카야마 마츠즈쿠리 스팟 주요 활동 및 지역활성화 사례 조사

④ 가나자와시청(金澤市役所)

- 주소: 石川縣金澤市大和町1-1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다이와초 1-1)
- 연락처 : +81-76-265-8300 +81-76-220-2351 tokei@city.kanazawa.lg.jp
- 홈페이지: <https://www4.city.kanazawa.lg.jp/soshikikarasagasu/toshikeikakuka/gyomuannai/1/1/2/index.html>
- 내용: 가나자와시청 도시계획과 최근 추진 정책 및 사업현황 조사

4) 세부일정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인물 (직책포함)
7/17 (월)	인천 (10:40)	나고야 (12:30)	(10:40) 인천공항 출발 (12:30) 나고야 중부국제공항 도착 (13:00-14:00) 나고야 시내 이동 (14:00-17:00) 노리타케의 숲 현장답사 - 노리타케 주식회사 공장이전부지 시민공원 재생사례 견학	-
7/18 (화)	나가하마		(10:00-12:00) 나가하마 쿠로카베스퀘어 현장답사 - 나가하마 쿠로카베스퀘어 현장 견학 (14:00-17:00) 나가하마 마치즈쿠리 주식회사 방문 및 면담 - 마치즈쿠리 운영방식 및 수익창출 방안 사례 조사 (18:00-19:00) 석식(현지 담당자 및 출장자 등)	야마자키 히로코 등 (마치즈쿠리 야쿠바 담당자)
7/19 (수)	다카야마		(13:00-15:00) 마치즈쿠리 스팟 방문 및 면담 - 다카야마시의 지역활성화 사업 조사 - 마치겐키 프로젝트 주요내용 파악 및 마치즈쿠리 스팟 주요 사업현장 시찰	타나베 토모야 등 (마치즈쿠리 스팟 담당자)
7/20 (목)	가나자와		(10:00-12:00) 가나자와 시청 방문 및 면담 - 가나자와시 지역활성화 정책,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발표 및 토론 (14:00-17:00) 히가시 차야가이 현장답사 - 중요 전통적 건조물 보존지구인 히가시 차야가이(ひがし茶屋街) 거리 경관 시찰 등 현장 견학	아오야마 마사유키 등 (가나자와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담당자)
7/21 (금)	나고야 (13:40)	인천 (15:40)	(13:40) 나고야 중부국제공항 출발 (15:40) 인천공항 도착	-

5) 회의 일정

① 나가하마 쿠로카베 스퀘어(黒壁スクエア)

- 일시: 2023. 7. 18(화) 10:00~15:00

10:00 ~ 11:30 가이드* 동행 마을 안내 (* 쿠사노 요시오(草野佳代))

11:30 ~ 12:30 점심식사

13:00 ~ 15:00 나가하마 마치즈쿠리 설명회 (쿠로카베스퀘어 내 스킵레 3층 회의실)

· 강사: ① 이토 미츠오, ② 키타가와 카즈오

· 총괄 : 야마자키 히로코(山崎弘子) (마치즈쿠리 야쿠바, NPO法人まちづくり役場)

- 주요내용

· 지방중소도시 중심시가활성화사업 추진현황 조사

· 나가하마 중심상업지역 및 쿠로카베스퀘어 견학

· 마치즈쿠리회사를 통한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현황 조사

[그림 1] 명함: (좌) 야마자키 히로코, (우상) 이토 미츠오, (우하) 키타가와 카즈오



② 다카야마 마츠즈쿠리 스폿(高山まちづくりスポット)

- 일시 : 2023. 7. 20(목) 13:30~15:00

13:30 ~ 14:00 마치 스폿 히다 다카야마(まちスポ飛驒高山), 프레 스폿 히다 다카야마 (フレスポ飛驒高山) 도보 시찰

14:00 ~ 15:00 마치즈쿠리 스폿 설명회 (Town Spo Hida Takayama 내 회의실)

- 주요내용

- 다카야마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 및 사업의 개요
- 다카야마 마치즈쿠리스파트의 설립 및 운영 개요 및 주요 활동
- 마치즈쿠리 관련 부처연계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등

[그림 1] 명함: 타나베 토모야, 혼마 아카리, 노쿠비 आयुमि, 이가라시 히로코 (좌측부터 순서대로)



④ 가나자와시청(金澤市役所) 도시계획과

- 일시: 2023. 7. 20(목) 10:00~11:30 (가나자와시청 본관 2층 2201호 회의실)
- 내용: 가나자와시 최근 도시정책 및 사업사례 조사
 -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적 정책방향 (역사문화자원과 현대유산의 활용)
 - 「나무의 문화도시·가나자와」 소개

[그림 2] 명함: (좌) 아오야마 마사유키 도시계획과장, (우) 아라이 미카코 도시기능향상계장



2. 노리타케의 숲(ノリタケの森)¹⁾

1) 설립 연혁

- 노리타케 숲은 도자기를 만드는 노리타케사가 공장 건물을 문화시설로 전환하고 부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한 곳으로, 기업 소유의 땅이 지역주민의 공원으로 재탄생한 이색적인 사례
 - 노리타케사²⁾는 1904년 이 공원에서 도자기 공장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창업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공장 건물을 그대로 활용해 전시장과 기념공원으로 조성
- 창사 100주년을 앞두고 48,000m² 규모의 공원을 만들어 2001년 10월 5일 주민들에게 개방
 - 1970년대 들어서면서 노리타케사는 사세의 확장과 함께 저렴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공장 시설을 국내는 규슈로, 국외는 스리랑카와 필리핀 등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1990년대 들어 본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설이 국외로 이전
 - 그 결과 기존의 공장 부지는 대부분 공동화되었고 이후 부지의 재활용 문제가 대두되면서 노리타케사는 현재의 부지에 25억 엔을 투자해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결정

2) 공원 설계의 특징

- 남겨진 공장 건물을 박물관과 전시 시설, 갤러리, 판매장, 레스토랑 등의 시설로 재활용한 공원은 크게 남쪽의 상업 영역과 북쪽의 자연 영역으로 구분
 - 중앙의 굴뚝 정원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옛 시설들이 있었던 건물들이 다양한 전시와 문화예술의 역할을 수행
 - 공예센터, 스쿼어카페, 웰컴센터, 킬른레스토랑, 일본 서양식기 역사의 상징인 적벽돌 건물**, 다목적홀, 노리타케 사옥 등 모두 7동의 건물이 위치
 - 일본 산업시대의 초기 건물로서 가치가 있으며 3개 적벽돌 건물이 하나의 건물을 형성
 - 북쪽에는 새롭게 조성된 공원으로서 물과 오솔길, 잔디밭과 나무들이 어우러져 도심에서 평온한 분위기를 연출
 -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인 굴뚝 6개**를 중심으로 광장과 자연생태공원, 주차장 등이 위치
 - 기념비처럼 서 있는 6개의 거대한 굴뚝은 예전에 도자기를 구워 내던 가마의 굴뚝으로 원래 45미터 높이였던 것을 10미터 정도 높이로 잘라낸 것

1) 노리타케의 숲 홈페이지 및 홍보자료: 김도형·박진경, 2018, 전남만의 도시재생사업 연계형 도시숲 유형 개발, 2018 정책이슈리포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참조

2) 오늘날 노리타케사는 도자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라믹 분야, 자동차, 철강 등 에너지산업, 반도체와 의약 분야까지 사업 영역 확대

[그림 3] 웰컴센터 (좌: 웰컴센터 입구, 우: 노리타케社 역사 전시관)



출처: 직접 촬영

[그림 4] 라이프스타일숍 (좌: 라이프스타일숍 전경, 우: 판매 및 전시 중인 노리타케社 제품군)



출처: 직접 촬영

- 자연과 커뮤니티 문화 사이의 공존을 표방한 노리타케 숲에는 넓은 잔디밭과 화훼원은 물론, 키 큰 나무숲과 키 작은 나무숲, 상록수림, 수생 비오톱 등이 공원에 조성되어 있고 생태계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
- 공원의 북쪽 영역에는 향토 수종인 즐참나무 등을 심고 비오톱을 만들어 생태계의 복원을 시도했으며, 공원의 남쪽 영역에는 메타세콰이어와 느티나무를 심고 공원 경계를 따라 은행을 이용하는 등 상록수와 낙엽수를 식재
 - 비오톱: 식물, 곤충, 어류, 조류 등의 생물이 공생하는 자연을 도시 안에 복원한 장소
- 공원 안에 비오톱을 조성함으로써 독일에서 탄생한 자연환경 보호·육성의 개념을 노리타케의 숲에서도 실천하고 있음을 홍보

[그림 5] 노리타케의 숲 내에 조성된 주민휴식공간 (좌: 분수광장, 우: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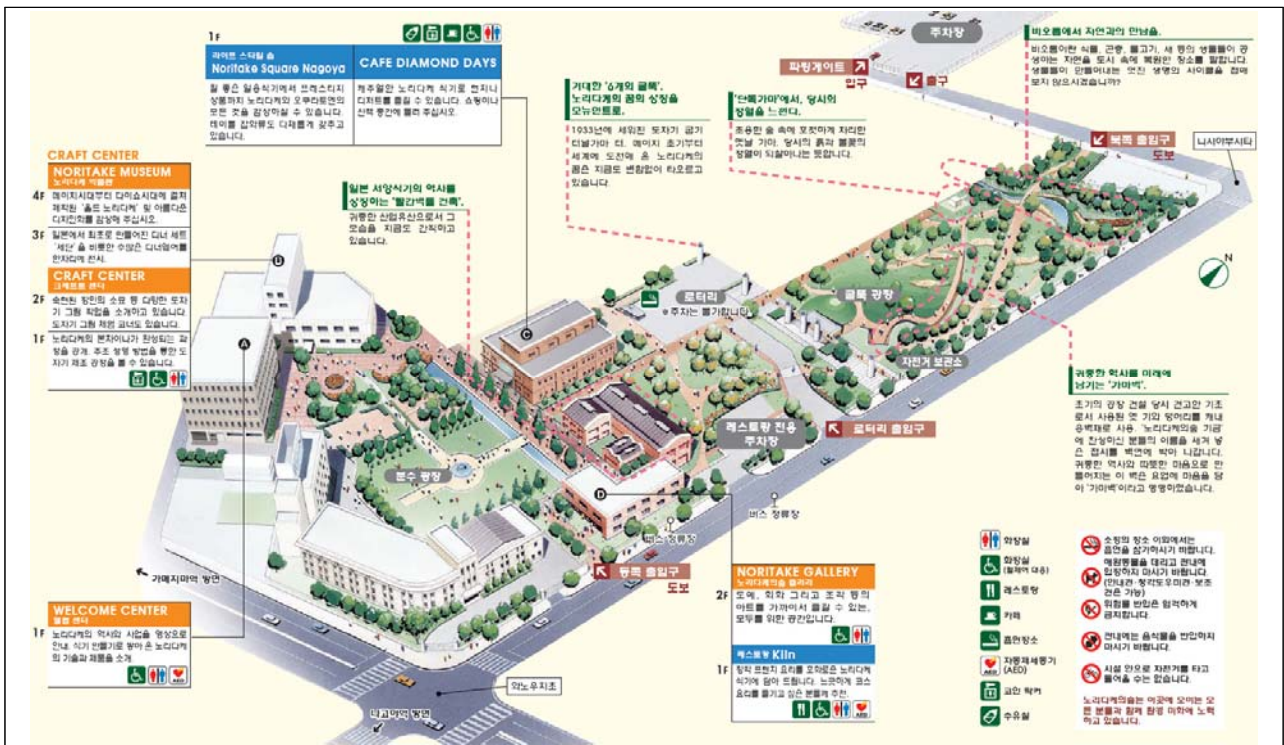
출처: 직접 촬영

3) 노리타케 숲 공원 조성의 의의

- 공원의 공식적인 이름인 ‘노리타케의 숲’이 말해 주듯, 노리타케사는 공원 방문객들이 곧 노리타케의 소비자임을 인식하고 공원녹지라는 얼굴로 100년의 회사 역사와 기업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을 선택
 - 공원 방문객들은 노리타케사의 역사와 함께 환경과 문화를 중시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결과적으로 문화적 공원 경관을 통해 노리타케사의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잠재적 소비자 역할
 - 노리타케 숲은 노리타케사가 환경, 문화, 산업, 경제 등의 지역적 특징 요소에 주목하면서 환경 친화적으로 경영한다는 기업의 이념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효과적인 장소로 평가
 - 도심에 쾌적한 경관을 창출하고 기업의 역사와 생산품을 전시·판매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전략은 생태와 환경이 중시되는 현 시대에 효과적 방식
 - 노리타케 숲 공원은 경관을 통한 이미지 구축, 경관 상품화 전략의 좋은 사례로서 산업시설의 이미지 변신이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 노리타케 숲은 도심의 자연과 생태가 오래된 장소의 기억과 만났을 때 그 효과가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산업시설 재생공원의 좋은 사례로 평가
 - 황량한 산업시설이 문화의 생산·소비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한 노리타케 숲 공원은, 땅이 갖고 있는 시간의 흔적을 가시화하면서 새롭게 조성된 공원녹지와 어울려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
 - 옛 굴뚝과 가마들을 그대로 보존해 장소가 갖는 옛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어, 일반인뿐만 아니라 일본 스케치 동호회가 자주 찾는 명소로 발전
 - 노리타케의 숲은 기업의 이념과 설립 취지를 여러 분야에서 인정받아 다양한 상을 수상

* 2002년도 ‘나고야시 도시경관상’, 제18회 도시공원 콘쿠르 시설·재료·공법 부문 ‘사단법인 일본공원녹지협회 회장상’, 제23회 ‘녹색도시상’ 국토교통성장관상(재단법인 도시녹화기금, 요미우리 신문사 공동 주최), 2003년도 ‘굿디자인상’(재단법인 일본산업디자인진흥회 주최) 등

[그림 6] 노리다케의 숲 조감도



출처: 노리다케숲 홈페이지.

3. 나가하마 쿠로카베 스퀘어(黒壁スクエア)

1) 설립 연혁

- 나가하마 쿠로카베 스퀘어는 일본 오사카(大阪)와 나고야(名古屋) 사이 시가현(滋賀) 나가하마시(長浜市) 구도심 상점가에 위치한 상점가
 - 쿠로카베(くろ壁: 검은 벽)이라는 명칭처럼 검정색 벽이 주를 이루며, 과거 변화했던 상점가가 침체되자 상인과 마을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전통건물을 복원하고 유리공예 등을 도입하여 다시 상점가를 활성화한 사례
 - 1998년 자체적으로 만든 마을만들기 사무소(마치즈くり·まちづくり役場)가 구로카베 점포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마을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이들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였으며, 지난 25년간 미술관과 어묵집, 찻집, 전시관, 레스토랑 등 35곳의 점포가 새롭게 창업하는 등 장기간 재생력을 유지하는 드문 사례임

[그림 7] 쿠로카베 스퀘어 사업소개 및 질의응답



출처: 직접 촬영

2) 지역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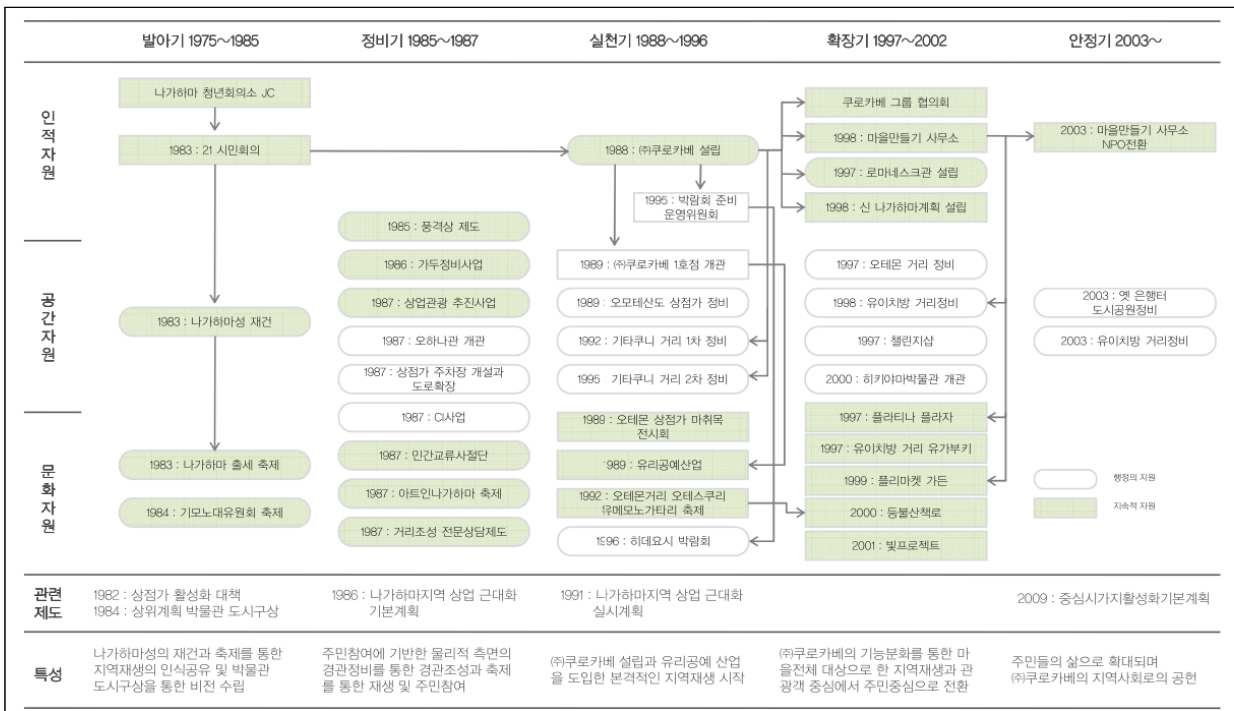
- 나가하마시(長浜市)는 1970년대 초까지 사가현에서 가장 활기찬 거리로, 도시 규모를 상회하는 상점가가 형성된 지역임
 - 그러나, 이 도시는 1975년 경부터 점차 침체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교외에 입지한 대형상점의 진출은 중심 시가지의 급속한 쇠퇴를 초래함
 - 당시 일본 농촌에는 자동차가 대량 보급되기 시작하였는데, 자가용 운전자들은 주차장이 갖추어진 교외의 대형상점들을 선호한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나가하마시는 새로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모색함
 - 그 발단이 된 것이 1983년에 시민들의 기부에 의해 완공된 가마하마성 재건으로, 이 때 지방축제가 열리고 각종 이벤트가 개최되기 시작함
 -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1984년 3월에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 개성적이고 매력 있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박물관도시구상”이 작성됨
-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나가하마시의 도심시가지 공동화를 막는 데는 별반 기여하지 못함
 - 시당국 조사에 따르면 나가하마 중심 시가지에는 1개월에 4,000명 정도, 1일 평균 100인 정도밖에 손님이 찾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음

- 400여 개가 넘는 점포가 있는 중심시가지에서 문을 닫는 점포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함
- 1987년 12월에는 급기야 100년 가량의 역사를 가진 쿠로카베 건물의 매각으로 이어짐
- 이 건물은 나가하마의 명물로 중심가의 상징적인 존재로, 전후 카톨릭 교회로 이용되었지만 신자가 모이지 않아 빈 건물로 남아있었던 것임
- 쿠로카베 철거계획은 지역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켜, 이 때 중학교 학부모회(PTA) 회장이었던 사사하라 상이 사교육위원회에 이 건물을 사들일 가격을 건의하면서 쿠로카베의 역사가 시작됨(권오혁 외, 2012)

3) 조직 개요

- (주)쿠로카베의 설립자인 사사하라 상은 100년 가량의 역사를 가진 쿠로카베 건물 보존을 위해 1988년 3월 제3섹터 형태의 회사설립을 추진함
- 1899년 메이지시대에 지어진 다이야쿠산쥬은행(第三百十銀行) 나가하마 지점건물의 보존운동으로 시작해 건물을 중심으로 한 거리풍경 보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988년 (주)쿠로카베를 제3섹터로 설립함
- 초기자본금 1억 3천만 엔 중 나가하마시가 4,000만 엔, 8개의 민간 출자자 9,000만 엔을 출자하였음

[그림 8] 나가하마시 마을만들기 추진 연혁



주: 나가하마시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1988년 (주)쿠로카베 설립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의 인적자원이 확장되어, 2003년부터 지역의 문화자원을 이용한 공간관리로 마을만들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자료: 마을만들기 르네상스, 2012

○ 회사설립 후 수개월 간 회의를 거쳐 쿠로카베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로 “유리사업”을 하기로 의견을 모음

- 일본의 제3섹터형 유리공방들은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사례를 검토하던 중 유럽의 유리 산지에서 영감을 얻어 “유리문화종합사업”을 통한 지역활성화계획을 추진하기로 함

4) 주요 활동

- (주)쿠로카베시는 “쿠로카베 스퀘어”를 중심으로 유리 전시관, 공방, 프랑스 요리점 등 상점을 직접 운영하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함 ((주)쿠로카베, 2014)
- 쿠로카베 스퀘어는 검정색 석고로 만든 일본식 건축물이 모여 있는 거리로 「쿠로카베 1호관」부터 30호관까지를 총칭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타쿠니 거리(北國街道)와 오테몬 거리(大手門通り)의 교차점에 있는 사츠노츠지(杙の辻)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구역을 의미함
- (주)쿠로카베의 주요업무는 ① 일본 유리 공예품 전시판매, ② 해외 아트 유리 수입, 수집, 전시판매, ③ 유리공방운영, 오리지널 글래스 제작판매, ④ 식당 찻집 운영, ⑤ 유리 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이벤트 기획운영, ⑥ 마을만들기 문화에 관한 정보, 자료 수집, 제공, ⑦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 ⑧ 여행업, ⑨ 주류판매 등임

- (주)쿠로카베는 손님이 사지 않아도 구경을 하고 마음에 들면 다시 방문할 것으로 판단하고 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는 사업을 이어가고, 판매시설 뿐만 아니라 미술관과 갤러리 등을 보고 학습하는 시설을 강화해 나감
- 2001년 말까지 (주)쿠로카베는 관련 점포와 공방들을 증설하여 30여 개의 시설을 배치하여 직영 운영하기 시작함
- 30여 개 시설 중 10개관이 직영, 오르골관을 포함한 2개관이 공동운영이며, 5호관은 관광물산협회와 쿠로카베의 일본풍 유리점으로 공동이용되고 있음
- 3호관 프랑스 요리점과 19호관, 24호관은 입점자가 들어와 있으며, 나머지 15개관은 가게 만들기, 거리만들기에 있어 쿠로카베와 공통의 인식과 생각을 가지는 외부 경영자들이 경영하고 있음
- (주)쿠로카베의 핵심사업 영역은 유리공예품 전시판매이며, 여기에는 국내외 아트글래스 수입 및 수집, 전시판매와 유리공방 운영, 오리지널 클래스 제작 판매 등이 포함됨
- 쿠로카베의 경영은 자체사업으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은 받지 않으려고 함
- (주)쿠로카베가 출범한지 3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고 코로나 이전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였으나, 2019년 이후에는 관광객 수 급감으로 적자로 전환됨
- 코로나 이전인 2017년의 경우 전체 직영점의 매출은 8억 엔, 점포 방문객 수는 연간 200 만명, 직원수는 설립초기 6인에서 100인으로 증가하였음
- 적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주)쿠로카베와 마치즈쿠리 야쿠바는 정부의 보조금이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기업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기본적으로는 자체 재원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쿠로카베 스퀘어의 운영주체인 (주)쿠로카베는 나가하마시의 다양한 조직들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쿠로카베시의 마을만들기 및 수익사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은 “마치즈쿠리 야쿠바”라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음³⁾
- 연계조직으로는 쿠로카베 그룹 협의회, 아자이(淺井) 세 자매 박람회 나가하마 부회, 나가하마 어반 클래스 콤포지션, 나가하마 기모노 대원유회, 나가하마 기모노대학, 나가하마 히키야마 마즈리, 나가하마 상점가연맹·나가하마 고보 오모테산도, NPO법인 마치즈쿠리 야쿠바 등이 있음
- 마치즈쿠리 야쿠바 설립개요 및 활동상
- 마치즈쿠리 야쿠바는 1998년 설립되어 2003년 특정비영리 활동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누구라도 자유롭게 찾아와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연중무

3) 마치즈쿠리 야쿠바 홈페이지 [http://www.biwa.ne.jp/~machi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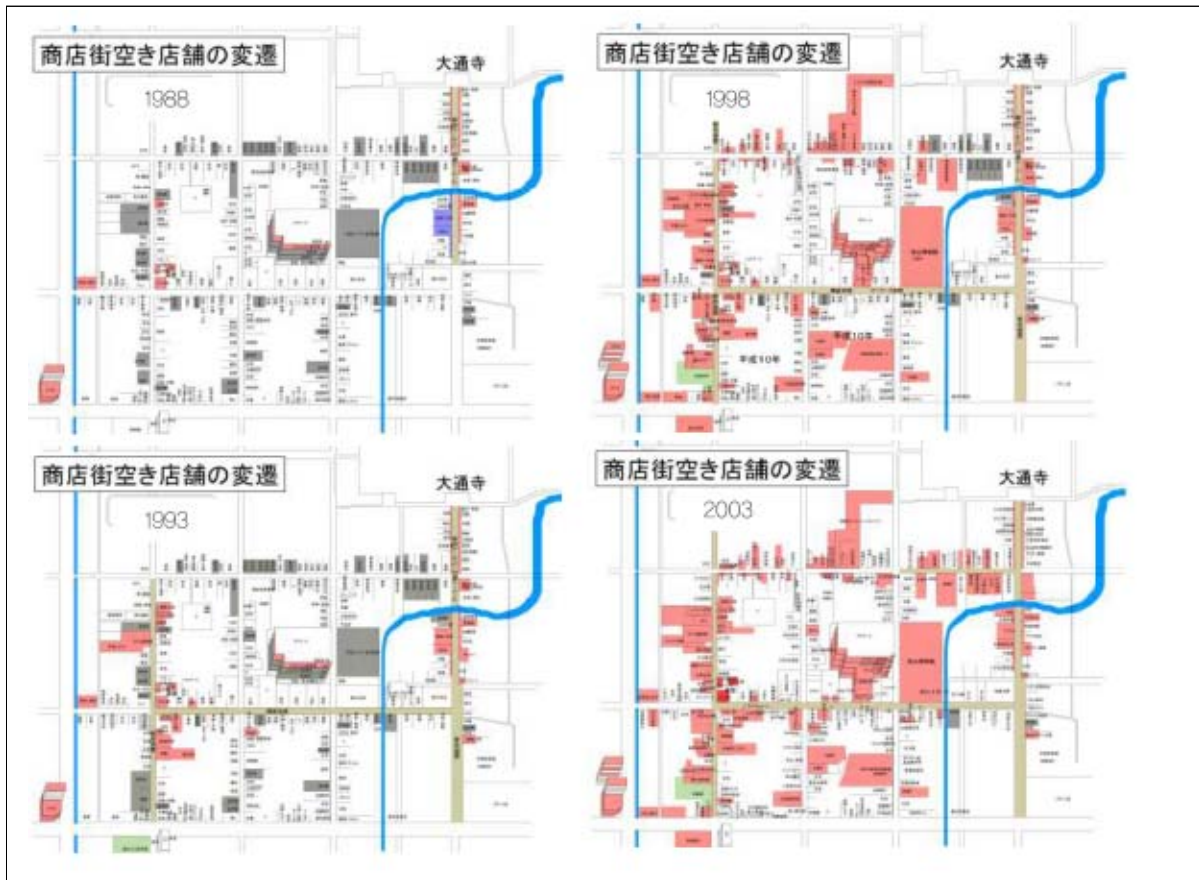
휴로 운영 중임

- 마치즈쿠리 야쿠바는 1) 정보발신, 2) 네트워크, 3) 마을만들기 연구를 주로 담당하며, ① 플라티나 플라자 지원, ② 쿠로카베 그룹 협의회 사무국, ③ 出島塾사무국, ④ 집·가게·마을 연구소, ⑤ KBS 시가 라디오, ⑥ 나가하마 마을걷기 지도 만들기, ⑦ 나가하마 마을만들기 시찰 수탁, ⑧ 문교 스튜디오 나가하마 영업소, ⑨ 오미문고(文泉堂), ⑩ 나가하마 이야기(長浜物語「町衆と黒壁の十五年」) 발간, ⑪ 관광가이드, ⑫ 시찰단체 접수 및 안내, ⑬ 感響프리마켓 가든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음

5) 성과

- 사업 초기 빈 점포들이 과반수 이상이었던 상점가가 2023년 현재는 대부분 점포들이 입주하여 공실률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나타남
- 도로정비(도로포장 등)는 1988년 다이츠지 앞 도로를 시작으로 1998년 오테몬 거리와 기타쿠니 거리, 2003년 유치반 거리 등으로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음

[그림 9] 쿠로카베 스퀘어 빈점포 변화상



주: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빈 점포이고,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개보수, 신축된 상가, 주차장, 숙박시설 등
자료: (주)쿠로카베 홍보자료

- 쿠로카베는 제3섹터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수익창출을 하는 모델로 제3섹터 사업들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일본에서도 매우 특이한 사례로 인정받고 있음
- 공실화된 도심건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활용하려고 시도함
 - 쿠로카베 사업 시초가 단순한 유리공예산업의 전략적 육성이라기보다는 도시내 전통건물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수단으로 유리공예산업을 활용했다는 점이 중요함
- 우수한 인재의 유치와 학습네트워크의 구축
 - 쿠로카베 유리공예산업의 성공적인 경영은 우수한 인재의 유치와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봄
 - 쿠로카베사는 교토·나라·토야마·와카야마 등의 예술계대학 및 미술과나 디자인과 출신의 대졸 전문직으로 직원을 구성하였고, 제조부문의 15명 정도 직원은 전국의 예술계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인재를 모집함
 - 일본에서는 높은 수준의 유리문화와 기술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채용한 인재들에게는 적극적인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유럽 각지의 교육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제3섹터 조직의 효과적인 활용
 - (주)쿠로카베사는 “경영흑자”를 가장 중요시하지만, 제3섹터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마치즈쿠리 야쿠바”라는 비영리법인과의 파트너십 활동을 통해 기업의 능력을 초과하는 지역기반 활동영역을 분리 운영하고 있음
 - 즉, 쿠로카베사는 제3섹터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업역을 나누고 파트너십으로 그 영역을 분리하여 전문화함으로써 오히려 전체적인 지역활동의 범위는 넓어지는 효과를 거둠

[그림 10] 쿠로카베 스퀘어 상점가 전경



출처: 직접 촬영

[그림 11] 쿠로카베 스퀘어 상점가 (좌: 상점가 내에 위치한 마치즈쿠리 주식회사 사무소, 우: 상점가)



출처: 직접 촬영

[그림 12] 시가현 및 나가하마시 문화유산 전시관 (좌: 나가하마시 전통문화 소개 영상, 우: 전시관 전경)



출처: 직접 촬영

[참고]

장사 1: 이토 미츠오 (伊藤 光男, いたう・みつお) 프로필

가 가 1

1947 11 15 가
 1966 가
 1971

1974 가 ()
 1981
 1983 가
 가 21
 1985 가 ()
 2.5ha ' CAN'S'
 가

1988 ()
 가 3ha CAN'S2
 () 가

1989 JR 가 가
 1996 16 () 가
 ,

1997
 1998 가 가
 가 TMO
 2002

가 6ha 가
 2003

2004 가 .
 2006 가
 2007 가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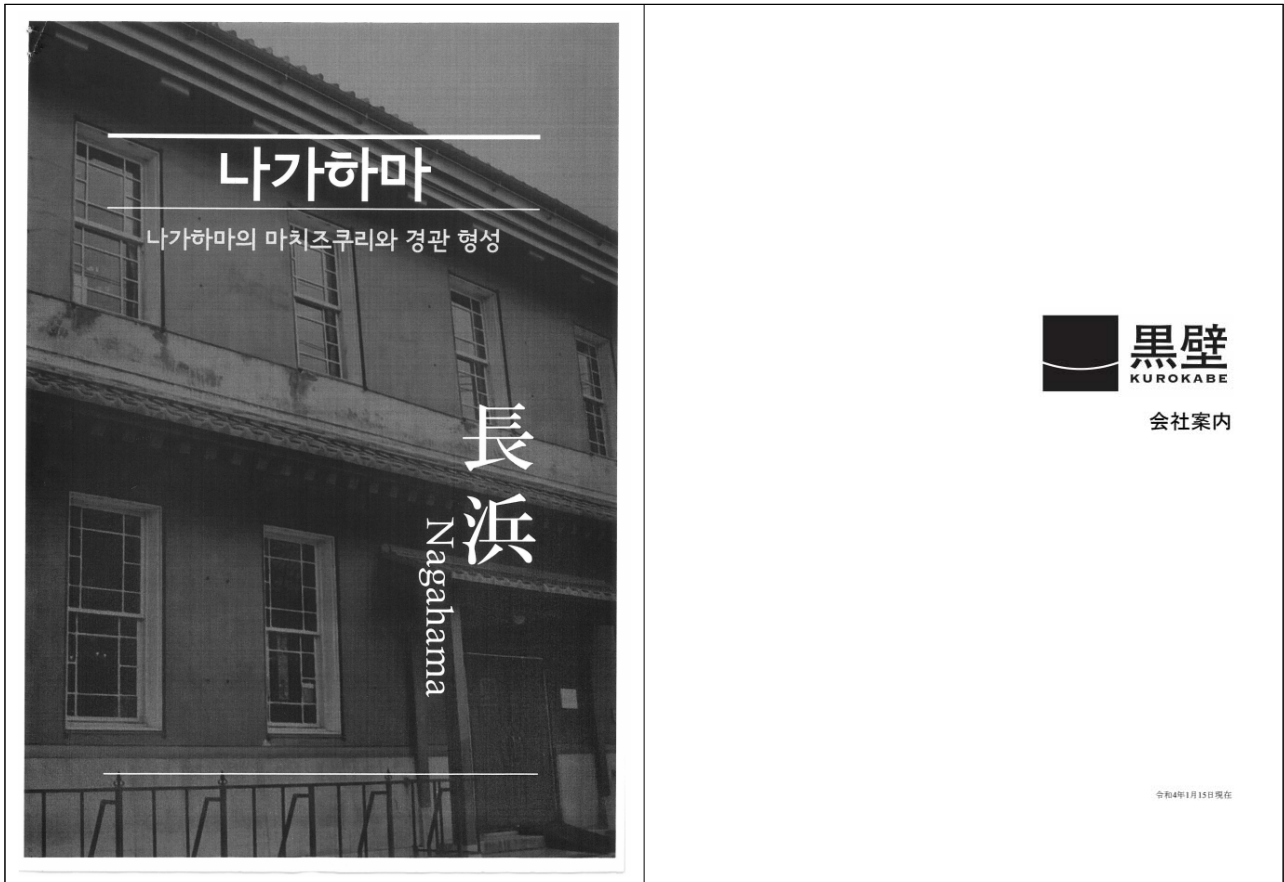
2008 가 가
 2012 가
 ()

[참고]

장사 2 : 키타가와 카즈오(北川賀寿男 (きたがわ・かずお)) 프로필

가
NPO
36 (1961) 가 (가) .
, 60 (1985) 가 .
1 .10 . , ,
2004 (2004) 10 .
2012 , 2014 (2014) , 2016 (2016)
, 2017 (2017) , 2020 (2020) 2021
(2022)3 . 4 1 가 .
1992 (1993) (10)
1996 (1996) (236)
2006 (2008) . (327)
2011 (2011) . (324)
2012 (2012) (254)
2014 (2014) (344)
2016 (2016) in 가 2016(2)
, 1998 5 , 2014 2 . 가 ISO14001
, (,) .
, ()
가
“ ” “
” “ ”
4 D .
(가 ,)
P.F. (,)
E. (QC(Quality Control,))
D. (.)

[그림 13] 제공자료 (좌: 나가하마 마치즈쿠리와 경관형성 소개 자료, 우: 쿠로카베 2021년 회사안내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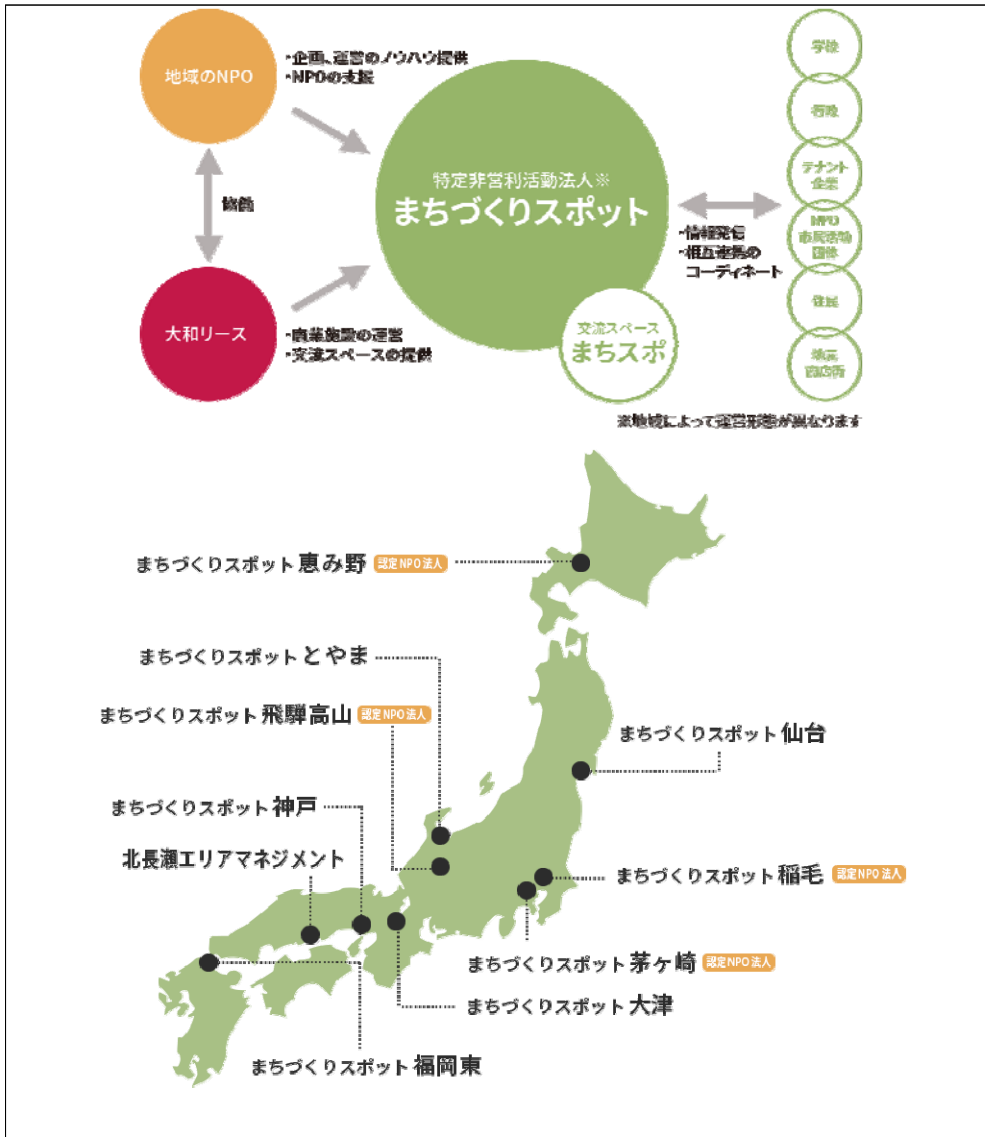
출처: 마치즈쿠리 야쿠바 제공

4. 다카야마 마츠즈쿠리 스팟(高山まちづくりスポット)

1) 개요

- 다카야마는 한 때 인근 지역에서 뛰어난 장인과 농부, 상인들이 몰리는 변화한 거리였으나, 쇠퇴 일로를 걷던 와중 지역활성화사업, 마치고끼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지역을 활성화하였음
- 다카야마 마츠즈쿠리 스팟은 기후지역의 기업인 다이와리스와 지역 NPO가 협동으로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사례임
- 특히 NPO와 민간기업의 우수 협력사례로, 기업의 이익을 NPO적 시선에서 활용토록 발상을 전환한 점이 주목할만 함

[그림 14] (상) 마치고끼 스팟 조직체계도, (하) 마치고끼 스팟 10개 거점 정보



자료: Daiwa Lease 홈페이지 <https://www.daiwalease.co.jp/approach/machispo.html>

2) 주요 사업 및 활동

① 교류공간 만들기

- 다양한 단체활동 추진
- 상업시설지구를 방문하면서 일부러 오기보다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친구 집에 놀러가듯이 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② 네트워크

- 히다 다카야마를 시작으로 현재 일본 전체 10개 거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마다 다이와리스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

③ NPC 활동

- 사회공헌활동을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추진함에 있어, 민간기업은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역과 기업을 연계하기 위한 중간자적 입장에서 지역과 민간기업이 서로 이익이 되는 win-win 정책 추진
- 임의단체들이 인증법인에서 법인으로 법인화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역의 임의단체들은 신뢰도를 제고하여 지역활동을 확장할 수 있음
- 청년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공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며 향후 취업 등에 인센티브가 있어 유리함
- 지역에 청년들이 머물기 위해서는 “지역에 멋진 어른들이 많이 남아야 한다”라는 신조로 지역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④ 고령자 쇼핑대행

- 1) 개별 인터뷰를 통한 문제점 상담, 2) 주부, 상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그룹을 통한 인터뷰 실시, 3)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도출(예시: 고령자 대상 장보기 대행 투어 등) 등의 단계를 통하여 문제점 해결

3) 지역의 매력 알리기

① 지역에 있는 어른이 매력적인 지역만들기 상담

② 지역사람들을 만나는 체험기회 확대

③ “히다 다카야마 어린이 응원단” 등 발룬티어 단체봉사 활동

- 2014년 29개사 , 37개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확대

④ 2022년 지역 및 일자리 발견대 운영, 10개 회사 509명 참여 (기후현 내 시정촌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 일본에서는 지역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활동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지역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활동비용은 기업 협찬으로 이루어짐

⑤ 재류외국인 관련 사업 (개회) 네트워크

- 재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인턴들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집과 직장만 다니고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 "업무(근무)시간 이외에 자유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을 수렴
- 이를 통하여 재류외국인이 소속된 기업과 연계하여 일본식 방재활동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에서 할애하고 지역사회 교류활동 확대 방안 등을 공동으로 모색

[그림 15] 프레스포 히다 다카야마 전경 (우측 황색 건물은 마치지쿠리 스팟 사무소로 사용)



출처: 직접 촬영

[그림 16] 프레스포 사업소개 (좌: 마치즈쿠리 스팟 담당자의 프레스포 사업소개, 우: 프레스포 입구 표지석)



출처: 직접 촬영

[그림 17] (좌) 프레스포 시설 배치도, (우) 다이와하우스리스가 속해 있는 다이와하우스 그룹 소개도



출처: 직접 촬영

[그림 18] 다카야마 마치즈쿠리 스팟 사업 소개 및 질의 응답



출처: 직접 촬영

[그림 19] (좌) 프레스포 조성 전 부지에서 사용되던 굴뚝 보존, (우) 주민 교류 및 참여 행사 안내문



출처: 직접 촬영

[그림 20] 제공자료 (좌: 마치즈くり 스팟 소개 발표자료, 우: 마치즈くり 스팟 2021년도 연차보고서)

<div data-bbox="199 336 758 369" data-label="Section-Header"> <p>【 비 전 】</p> </div> <div data-bbox="199 376 758 414" data-label="Text"> <p>같이 걸어 나갑니다, 그 한 걸음을 응원합니다 !</p> </div> <div data-bbox="199 421 758 638" data-label="Text"> <p>마치스포는, 당신의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단체입니다. 저희들의 활동을 통해 생기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물질, 사람과 활동을 묶는 「매듭」이 지역을 지켜나가는 원동력이 되어 결국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p> </div> <div data-bbox="199 649 758 683" data-label="Section-Header"> <p>【 미 셴 】</p> </div> <div data-bbox="199 683 758 750" data-label="Text"> <p>사람과 사람, 활동, 물질을 묶어 지역을 활성화 시킵니다!</p> </div> <div data-bbox="199 757 758 996"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고,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기회를 만듭니다. · 개인과 단체, 기업이 시민 활동을 가깝게 여기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 시민 활동과 관련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 기업, 행정, NPO가 각자의 장점을 살려, 서로간에 이해하며 지탱하는 관계를 만듭니다. </div> <div data-bbox="494 1008 758 1086"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821 313 1133 425"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885 526 1396 862"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997 896 1284 1064" data-label="Text"> <p>ここでつながる、 ここからはじまる。 新しい一歩。</p> </div>
--	---

출처: 마치즈くり 스팟 제공

5. 가나자와시(金沢市) 도시활성화 사례

1) 개요

- 일본 중북부 해안선 이시카와현 정중앙에 위치한 가나자와시(金沢市)는 일본의 대표적인 고도(古都) 중 한 곳임
- 세계 최고의 금박공예도시이기도 한 가나자와 도심 곳곳은 예술과 산업이 어우러지는 도시의 풍취가 매우 조화로운 곳으로, 가나자와 도시재생의 핵심은 에도시대(江戸時代)부터 물산이 풍부하고 예술과 공예가 발달하여 「가가백만석(加賀百万石)」이라고 불릴 정도로 번영해 왔던 도시의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살려 현대의 도시와 조화를 만들어내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에도 가나자와는 일본의 우수 관광도시 중 하나로, 겐로쿠엔(兼六園)이 일본 3대 정원으로 유명하고 매년 6월 중순의 주말에는 가나자와 하쿠만고쿠 마츠리(金澤百万石まつり)⁴⁾가 개최됨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아 중심시가지도 역시 전쟁 전의 모습을 그대로 남기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가나자와성과 그 앞을 흐르는 아사노 강변 주변의 히가시차야거리(ひがし茶屋街)는 가나자와 도시재생을 대표하는 사례 지역임
- 이 밖에도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가나자와 우타츠야마 공예 공방(金澤卯辰山工芸工房), 가나자와 유와쿠 창작의 숲(金澤湯涌創作の森) 등이 역사와 문화예술을 테마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곳들임
- 이처럼 가나자와가 평범한 역사도시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을 가나자와 도시재생 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음

2)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오래 전부터 터를 잡은 섬유업체들을 중심으로 마련된 단단한 산업기반이 있고 견직물과 봉제 뿐 아니라 금속·인쇄공업도 발달했던 가나자와는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에서 점차 소외되면서 쇠락하기 시작함
- 다행히 가나자와는 400년 넘게 지진이나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 에도시대부터 쌓인 전통유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경관보존조례를 제정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경관조성사업을 진행해 옴
- 그 결과 유네스코는 2009년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 창조도시’로 가나자와를 선정하였으며, 현재에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일

4) 가나자와 하쿠만고쿠마츠리 홈페이지 <http://100mangoku.net/>

본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 도시가 되었음

3) 추진과정과 절차

○ 가

- 1968년에는 일본 최초로 '전통환경 보존조례(伝統環境保存條例)'가 제정되면서 가나자와 시의 역사경관과 마을거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됨
-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된 최초의 경관보존조례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의 전통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도시와 조화로운 새로운 전통환경을 형성하여 전승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가나자와시는 이 조례에 의거하여 전통환경 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의 건축·토지형질 변경·목죽(木竹)의 벌채 등에 대한 신고, 조언, 지도, 권고 등을 실시함
- 1970년대에는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지역문화자원 보존을 논의하고, 인근에 추진되던 방송탑 건립계획을 중단시키면서 역사문화지구의 지정과 도시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 1980년대에는 전통건조물관리조례인 코마치나미(こまちなみ)⁵⁾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관리하였고 1990년대에는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경관 도시로서 지역적 특성이 살아있는 도시로 성장함
- 이외에도 히가시차야거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건물 보존지구 조례(伝統的建造物群保存條例)', 가나자와 전통공예를 지원하기 위한 '공예공방조례' 등 수십 개의 관련 조례를 지정함

4) 재생계획 및 주요 전략

- 가나자와시는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1995년 “가나자와 세계도시 구상(金澤世界都市構想)”을 계획하고, ‘도심 르네상스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가나자와의 중심시가 지 활성화를 최우선 중요시책으로 지정함
- 세계도시 구상의 기본 테마는 “세계에서 독특함을 발하는 도시만들기”와 “주민 한 사람

5) こまちなみ⁵⁾의 어원은 역사적 풍치와 정취(古)가 느껴지는 작은(小) 거리를 가리키는 조어로, 다음과 같이 4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① 전통적인 건조물군(建造物群) 보존지구 정도의 면적과 질적 수준을 갖추지는 못하지만 성읍(城下町) 정도 수준의 거리, ② 통일된 경관을 갖추고 있으면 가옥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음, ③ 가옥 개개의 통일성보다는 주민의 삶과 생활감을 중시함, ④ 각 시대의 건물이 혼재함 등의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출처: 金沢市. 2018. 伝統環境保存条例制定50周年記念 金沢景観五十年のあゆみ. p.72.

한 사람의 행복을 지향하는 도시만들기”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심정비와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을 비롯한 다양한 박물관들의 설립 및 운영 등임

- 첫째, 도심정비는 가나자와성 부지(金澤城跡地), 현청부지(縣廳跡地), 가나자와대학 부속 학교 부지를 문화환경존으로 지정하여, 세계도시 가나자와의 모습에 어울리도록 새로운 활기가 있는 도심으로 정비
- 둘째,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을 비롯한 박물관군(群)을 조성함
 -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2005년 굿디자인 금상을 수상할 정도로 외관이 아름다운 미술관으로 외형적인 특징에 따라 “둥근 미술관(丸い美術館)”이라고 불림
 - 가나자와시의 유명 관광지인 겐로쿠엔(兼六園)의 대각선 맞은 편에 위치하여 가나자와성을 복원중인 가나자와성 공원, 변화가인 고린보(香林坊), 가타마치(片町)가 모두 도보권에 위치하며, 이시카와 근대문학관과 이시카와 현립 미술관 및 이시카와 현립 역사박물관 등 다양한 테마의 예술관련 시설들이 주변에 입지하여 역사문화자원의 집적을 활용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특히 건축가 세지마 가즈요와 니시자와 류에가 설계한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이 “문화창조”의 거점이 되어 다른 문화예술시설과 네트워킹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21세기 미술관의 부지 확보와 건립에 소요된 예산만 200억 엔에 달하는 거액이지만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연간 180억 엔 수준에 이른다고 추정됨
- 셋째, 전통의 계승을 위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가나자와경제동우회(金澤經濟同友會)가 중심이 되어, 에도의 모습을 간직한 도시와 전통공예, 마에다가(前田家)의 유산을 현대에 되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가나자와 창조도시회의(金澤創造都市會議)”와 “가나자와학회(金澤學會)”를 매년 번갈아 개최함
- 최근에는 “나무의 도시, 가나자와”를 컨셉으로 목재를 공공건축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일본 내에서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중 하나임

5) 사업성과 및 평가

- 가나자와시는 인구 45만 명 규모의 소도시이지만,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전통과 예술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한 전략, 지자체와 지역민의 협력을 통해 현재는 일본 유수의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함
- 특히 가나자와는 각종 문화재와 함께 21세기 미술관 등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로 잘 알려지게 되었으며,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새로운 문화 창조’와 ‘새로운 지역진흥의 창출’을 목적으로 2004년 문을 열어 올해로 개관 19주년을 맞이하였고, 연간 평균 이용객은 150만여 명이며 가나자와시 인구 45만여 명의 3배가 넘는 수준임

- 이와 함께 일본 3대 전통 정원 중 하나인 겐로쿠엔 등 관광 인프라가 집중된 가나자와 시청을 중심으로 상징지역의 경관 관리, “고마치나미 보존조례” 등을 통한 전통 주택가 보전 등을 통해 역사적 지구로의 관광객 매력 제고 효과는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1] 나무로 디자인된 가나자와 시청 1층 민원실 전경



출처: 직접 촬영

[그림 22] 가나자와 도시계획국 정책 설명회



출처: 직접 촬영

[그림 23] 히가시 차야카이 전경



출처: 직접 촬영

[그림 24] 제공자료 (좌상:가나자와시 도시계획 소개 발표자료, 우상: 가나자와시 도시계획 2020 개요판, 좌하: 가나자와시 집약도시형성계획 개요판, 우하: 나무의 문화도시 가나자와 소개 리플렛)

金沢の都市計画

平成20年7月20日
金沢市都市計画課



ヒアリング質問項目

1. 金沢の都市計画
2. 人口減少に対応した都市計画的な方向性
3. 「木の文化都市・金沢」

0. 金沢市の概要

1 金沢市の概要

面積 468.81km²
人口 458,005人 (R5.4.1現在 推計)
世帯数 210,307世帯 (R5.4.1現在 推計)

2 金沢市の概要

平均気温 14.3度 (平年値)
平均湿度 73% (平年値)
年間降雪日数 178日 (平年値)
年間降水量 2,470mm (平年値)
年間降雪日数 55日 (平年値)

多雨・多雪

早稲完熟、早刈り都市として、
瀬田時代以降の歴史的景観やまちあそびが色濃く残る。

古いものと新しいものが同時に共存し、
発展してきた歴史がある。

金沢の都市計画

KANAZAWA'S CITY PLANNING **2020**

概要版

金沢市

金沢市
平成20年3月策定
令和5年3月変更

金沢市集約都市形成計画

持続的に成長する成熟都市を目指して

概要版



木の文化都市・金沢を目指しましょう

歴史・自然・文化と調和した金沢ならではの木の文化都市の実現を目指して
「金沢市における木の文化都市の継承と創出の推進に関する条例」を令和4年4月1日に施行しました。

“木の文化”とは？
豊かな緑の自然環境の中で、建築・家具・工芸品など「木の質感」を醸し出すものを幅広く取り入れることによって形成される生活が“木の文化”です。

木の文化都市の実現へ

森林と木材の好循環をつくる
水と自然生活に積極的に取り組む
水を使った生活を推進する
水の伝統を次世代につなぐ
木の文化を創出する市民を育てる

木の文化を蓄積してきた金沢の伝統を継承し、更に人と地球に優しい木の文化を積み重ねることを目指します。

市民
事業者
金沢市

お問い合わせ先
金沢市 都市整備局 都市計画課
TEL: 076-220-2351 / FAX: 076-222-5119
Mail: tokei@city.kanazawa.lg.jp

詳しくは金沢市都市計画課
ホームページを御覧ください



출처: 가나자와시 제공

6. 마무리

[표 1] 주요 출장지별 내용 요약(거버넌스 유형 포함)

구분	나가하마 市 민관협력형(공공지원)	다카야마 市 민간주도형(공공지원)	가나자와 市 공공주도형
유형	중심시가지 살리자는 지역의 요구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민관출자회사 설립	지역의 기업과 비영리NPO법인이 협동하여 별도의 마치즈쿠리 법인 설립하여 공동 운영 및 역할 분담	역사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시민을 기반으로 공공이 주도적으로 역사/문화/경관의 일관된 정책으로 도시 발전
대표 사례	<p>쿠로카베 스퀘어</p> <p>1900년대 건설된 근대건축물(쿠로카베 은행)을 보존하여 민관출자회사 설립</p> 	<p>마치즈쿠리 스팟</p> <p>NPO법인이 민간 부동산법인과 협력하여 공장 이전부지를 지역 주민의 상업활동 및 교류공간으로 재생</p> 	<p>21세기 미술관</p> <p>현대 사회의 흐름을 반영해 만든 시립 문화예술공간</p>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쿠로카베 설립 후 건물 활용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회의 결과, 유리공예로 최종 합의 · 오타루지역의 유리공예를 벤치마킹하여 청년 중심으로 유리공예산업을 연수교육하여 지역 산업화 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부동산 회사(일본 1위)와 비영리 NPO법인이 협동하여 별도의 비영리활동법인 마치즈쿠리를 설립 · 민간부동산회사는 대상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상업 활동을 위한 임대 운영 시행(수익성) · 비영리활동법인은 주민 교류 공간 등을 운영(공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문화창조’와 ‘새로운 지역 진흥 창출’을 목적으로 개설 · ‘마을광장’이라는 건축 컨셉으로 설계하고, 야외 설치물과 식물이 가득한 공원 가운데 위치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로카베 유리관과 유리공방 운영 · 주변지역 빈 상가를 활용하여 직영, 임대, 공동경영, 관 주도 운영 등으로 레스토랑 등 점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공간 운영, NPO운영 지원,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육아교실, 어린이 지역활동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임 장소, 도서관, 강당, 어린이워크숍, 식당, 박물관, 상점 다실 등 운영 · 교육 프로그램, 토론회와 강의를 개최
주요 구조			 <p>[내부 도면]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으며 다양한 만남과 체험의 장의 공원같은 미술관 지향</p>
공공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건축물 보존 시민운동을 기회로 '88년 지자체 및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쿠로카베 설립 · 민간투자를 위한 기반정비(도로, 공공하수도, 공공시설 배치 등) · 역사적 가로경관 형성을 위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보조, NPO운영지원, 협동매칭, 축제 개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의견청취, 설계방향 정립 및 예산 마련 등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역사자산을 활용한 유리 공예산업을 유치 · (관광객 유치)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모델) 중심시가지활성화의 새로운 모델 창출(민관협력형 제1호 교류공간 및 운영주체) · (조화) 수익성의 상업공간과 공공성의 주민교류공간을 한 곳에 배치하여 주민의 상업활동 및 교류 수요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질)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소비 욕구해소를 통한 삶의질 향상 기여 · (지역이미지)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문화예술도시 이미지 구축